

초대형 입시비리...미국판 '스카이캐슬' 발각

정답 바꿔치고 운동경력 위조...연예인·기업인 등 대거 연루 총 50명 적발, 뒷돈 규모 280억대...사상최대 비리 스캔들

한 번도 제대로 된 축구팀에서 뛰어본 적이 없는 한 미국 여학생이 '스타 축구선수'로 둔갑해 명문 예일대에 체육특기생으로 스카우트되는 데에는 부모님이 건넨 120만 달러(약 13억6000만원)의 뇌물이면 충분했다.

학습장소가 있는 것처럼 속여 특별시험장에서 일반 수험생보다 더 오래 시험을 치른 한 고교생은 서부 명문 서던캘리포니아대(USC)에 합격할 수 있었다. 시험감독관이 이 수험생이 써낸 답을 나중에 정답으로 바꿔치기한 덕분이었다.

1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입시 비리 스캔들이 전모를 드러내면서 유명 연예인과 기업인 등 부자 학부모들의 비뚤어진 자식 사랑과 일부 대입 컨

설턴트의 거침 없는 불법 행위가 커다란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검찰청과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결과 발표로 공개된 이들의 천태만상은 마치 자녀들의 명문대 입학에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일부 부유층의 과도한 교육열을 꼬집은 국내 드라마 'SKY 캐슬'을 떠올리게 한다. 특히 드라마에서 부정행위를 서슴치 않았던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 역을 연상시키는 '미국판 김주영'이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소재의 입시 컨설팅업체 '에지 칼리지 & 커리어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윌리엄 싱어는 30년 가까이 입시 컨설턴트로 일하

서 대학 운동부 감독들에게 뇌물을 주고 부정시험을 앞선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유층 자녀들에게 명문대 합격을 선사했다.

그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대학 감독과 직원들, 입학시험 관계자들을 매수하기 위해 학부모들로부터 건넨받은 뇌물은 무려 2500만 달러(약 2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싱어는 부유층 수험생들의 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자신이 미리 매수한 감독관들이 있는 휴스턴과 로스앤젤레스(LA)의 특별시험장에서 SAT(미국 대입 시험)와 ACT(미국 대학 입학 지원을 위한 시험)를 치르도록 했다. 뇌물을 받은 감독관이 수험생의 답안지를 고쳐 원하는 성적을 받도록 해준 것이다.

법원에 제출된 수사 자료를 보면 싱어는 수험생이 학습장애자를 위한 특별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면 'ACT는 30점대, SAT는 1400점대를 보장할 수 있다'

고 자신했다. ACT의 만점은 36점이고, SAT의 만점은 1600점이다. 그 대가로 학부모가 낸 돈은 7만5000달러(약 8500만원)였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내세워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거나 건강 1만5000~7만5000달러에 입학시험 관계자를 매수해 정답을 빼내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NYT는 전했다.

이 외에 수험생의 인종과 기타 신상정보를 위조해 대입 과정에서 소수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선한 일도 있었다.

가장 흔한 수법은 부유층 자녀들을 체육특기생으로 위장하는 일이었다.

싱어는 일명 '열쇠'(The Key)라고 불리는 자신의 컨설팅업체와 비영리재단을 활용해 학부모들이 준 돈을 세탁한 뒤 예일대와 USC, UCLA, 스탠퍼드대, 조지타운대, 텍사스대의 각 감독 감독과 행정당국자들에게 뇌물로 건넸다고 한다. /연합뉴스

여성 우주인 화성 첫발 주목

NASA 여성우주인 증가

미국항공우주국(NASA) 책임자가 화성에 첫발을 디딜 인류가 여성일 수도 있다고 언급해 관심을 끌고 있다.

13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짐 브라이든스틴 NASA 국장은 지난 8일 과학전문 주제 라디오 토크쇼 '사이언스 프라이데이'에 출연해 미국이 달에 복귀할 때 여성 우주인도 함께 가느냐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그 가능성을 비쳤다.

그는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라면서 "사실 달에 내리게 될 다음 사람은 여성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성에 첫발을 디딘 사람도 여성일 수 있는 것 역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브라이든스틴 국장은 "NASA는 폭넓고 다양한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달에 첫 여성이 발을 디딘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했다.

NASA의 달 복귀나 화성 탐사 계획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단계인 점을 고려할 때 '세계 여성의 날'(8일)에 맞춘 수사적인 측면이 없지 않으나 NASA 내 여성 우주인의 활약과 우주인 남녀 성비로 볼 때 그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NASA가 이달 29일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진행할 여성 우주인만 참여하는 첫 우주영도 여성 우주인의 위상 강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여성 우주인의 비중은 약 34%로 증가세에 있다. 가장 최근에 교육을 받은 NASA 비행통제관 기수의 절반도 여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베네수엘라 검찰 대정전 사태 관련 혐의 과이도 국회의장 수사

베네수엘라 검찰이 12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항해 임시대통령을 자처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대정전 사태 관련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타렉 윌리엄 사브 베네수엘라 검찰총장은 이날 취재진에 "전력 시설의 고의적 파괴행위(사보타주)에 과이도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조사가 시작됐다"라고 말했다.

사브 총장은 "과이도 의장이 이번 전력 사보타주의 지능적인 설계자로 보이며 그는 사실상 대정전의 와중에 내전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과이도 의장이 어떤 혐의를 받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마두로 정부 대변인 적인 호르헤 로드리게스 공보장관은 과이도 사건은 그가 정전 기간에 약탈·파괴 행위를 선동한 것과 혼란을 야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력 공급선을 차단하려 한 것 등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과이도 의장은 이 같은 혐의가 거짓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이날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항의 집회에 참석해 "모든 베네수엘라인들이, 그리고 전 세계가 누가 사보타주를 했는지 알고 있다"며 "그것은 바로 마두로"라고 말했다.

이날 카라카스 동부의 광장에서는 시민 수천 명이 모여 항의 행진과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마두로의 사임 등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흔들고 차의 경적을 울렸다. /연합뉴스



베네수엘라에서 대정전 사태가 몇새째 이어지고 있는 12일(현지시간) 임시대통령을 자처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가운데)이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 참석해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검찰이 이날 과이도 의장을 대정전 사태 관련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과이도 의장은 이날 집회에서 이 같은 혐의가 거짓이라며 반박했다. /연합뉴스

英브렉시트 투표 재차 부결에 "노딜이냐 연기냐" 촉각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EU)이 합의한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이 12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에서 또 부결된 데 대해 독일 등 유럽 각국은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과 연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먼저 독일은 합의안이 또 부결됨에 따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했으며, 네덜란드는 브렉시트 연기 가능성을 제시했다.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하

이오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이번 영국의 회 결정으로 노딜 브렉시트 시나리오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브렉시트를 둘러싼 영국 내 혼란과 관련해 "시민의 안녕과 경제를 놓고 단일하게 도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는 잇따른 투표 부결에 따른 브렉시트 연기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를 위해서는 설득력이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안을 부결한

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영국이 연장을 요청한다면 믿을 수 있고 확실한 정당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의회 성명을 통해 예고한 대로 다음날인 13일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 여부를 하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의회가 '노딜'을 반대할 경우에는 다음날인 14일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표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보잉 '737 맥스' 운항중단 전세계 확산

미국만 나홀로 계속 운항

잇따른 추락사고로 미국 보잉사의 '737 맥스' 기종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면서 유럽과 아시아 국가가 줄줄이 운항중단을 선언하는 가운데 미국은 운항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이날 보잉사의 737 맥스 기종이 안전하며 운항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덴 엘웰 FAA 정장은 성명을 통해 "검토 결과 어떠한 시스템적인 성능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고, 해당 기종의 운항중단을 명령할 근거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보잉사 역시 운항중단을 선언한 국가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737 맥스 기종의 안전성에 자신한다고 밝혔다.

보잉의 테니스 필렌버그 최고경영자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서도 해당 기종의 안전성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항공당국과 제조사 보잉의 이 같은 입장에도 유럽과 아시아 등 737 맥스 기종을 운항 중인 대부분의 국가들은 줄줄이 운항 중단 발표에 동참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이 기종의 운항중단을 선언한 국가는 유럽과 중국, 영국 등 20개국에 달하고, 영공 통과를 금지한 국가는 호주와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등 9개국이다. /연합뉴스

필리핀 수도권 물 부족 사태 심각...인공강우 준비

필리핀의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 동쪽 지역에서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고 일간 필리핀스타 등 현지 언론이 13일 전했다.

메트로 마닐라 동쪽 지역에 거주하는 600여만명에게 수도물을 공급하는 '마닐라 워터'의 취수원인 라 메사 댐의 전 날 수위가 68.85m까지 내려가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기가 지속하는 데다 엘니뇨 현상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필리핀 기상청(PAGASA)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38개 마을에 거주하는 5만 기구에 6일째 수도물 공급이 끊겨 해당

지역 주민들이 급수차를 기다리느라 종일 길게 줄을 서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병원도 소방차 등을 이용한 긴급 급수소 가까스로 버티는 실정이다.

인근 지역 농작물 피해도 심각해 파가디안시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다.

PAGASA는 우기가 시작되는 오는 6월 말까지는 이 같은 물 부족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메트로 마닐라 서쪽에서 하루 5000만 l의 물을 동쪽으로 보내기로 했다. 또 농업부 등 관계 당국이 인공강우를 실시하기로 하고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임야, 투자적합
- 22600평중 지분 2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매매 - 5000만원

문의. 010-6834-7400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 급매8억(대출3억5천만원 포함)

문의. 010-3605-5000